

[성명서]

이동환 목사의 출교 신고 철회를 촉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올곧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하나님에게는 차별도, 위선도 없으시다."
(여성시편 92편 15절)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 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이동환 목사에 대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를 신고하였다. 목사가 약자의 편에서 축복기도를 한 것이 왜 출교의 이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한다.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다양하고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며 위선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할 존재를 누가 감히 차별과 혐오할 수 있는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곁을 내준 목회자에게 출교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마 25:40) 라고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곁에 계시다는 뜻이다. 이 사회에서 가장 배제되고 약한 자, 차별과 혐오를 당하고 있는 자, 그리고 소외된 소수자를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결정은 이러한 예수 정신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목사를 오히려 교단의 이름으로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를 자행한 것이다.

1980년에 출발한 한국여신학자협의회는 여성으로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차별과 불공정의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성과 약자들의 존엄성 회복, 사회와 교회의 민주화, 이 땅의 정의와 평화, 생명 운동의 전개와 확장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 누구도 차별과 불의를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배들의 신앙 정신을 이어받아 함께 달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당시 종교 권력으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찍힌 이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성소수자와 함께 동행하는 이동환 목사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 연회는 예수 정신에 위배한 것을 회개하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신고를 즉각 철회하라.
1.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 연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신고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고 사죄하라.
1.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회적 돌봄과 실천의 길로 돌이키라.

2023년 12월 17일

한국여신학자협의회